

# 신품종 '백계버섯' '녹각영지' 내년부터 종균 농가공급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노태홍) 버섯팀(팀장 이희덕 박사)이 개발한 신품종 <백계버섯>과 <녹각영지>가 최근 농촌진흥청 '2002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협의회' 심사를 통과해 내년 초 신품종으로 등록된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백계버섯>은 여름철 25~35℃의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출현해 몇시간 후 먹물이 생기는 먹물버섯 균주 가운데 CM980301을 양송이 재배법에 따라 배양해 재배특성을 확립한 고품질 다수확 품종이다.

모양은 흰닭(白鷄) 다리를 닮았으며, 수분이 90%로 씹는 느낌이 부드럽고 쫄깃해 버섯재배 단경기인 여름철의 양송이와 느타리 대체품종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수확량은 양송이의 평당 평균 수확량인 35kg에 비해 17% 많은 평균 41kg 이상이다.

<백계버섯>의 배양온도는 24~28℃, 생육온도는 20~25℃이며, 배지는 볏짚 발효퇴비를 이용해 균상재배할 수 있다. 재배기간은 배양 및 복토·버섯 발생까지 40일이 걸리며, 5~10월까지 재배가 가능하다. 수확은 대에서 갓이 분리되기 전인 버섯 크기 10cm 안팎일 때 실시한다.

아울러 <녹각영지>는 자실체가 시슴뿔(角) 모양으로, 수량은 기존 <영지1호>에

비해 20~25% 많으며 일반 영지보다 쓴맛이 강해 약용 가치가 높고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는 도농업기술원이 영지균주를 선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47종의 균주를 수집, 5년 동안 배양 및 재배특성을 연구해 개발한 신품종이다.

고온에서 병재배 또는 병지재배가 가능한 이 버섯은

배양온도가 24~28℃이며 생육온도는 28~32℃로서 재배과정에는 환기를 억제해야 녹각이 제대로 형성된다.

도농업기술원 버섯팀 김용균 연구사는 "이를 농가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품종등록 및 생산판매 신고를 거쳐 내년 초부터 종균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남농기원, 한약재 천문동 대량 증식법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약재 천문동(天門冬)의 종자 증식법이 개발돼 농가 소득증대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13일 "무분별한 채취와 낮은 발아율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천문동의 대량 증식방법을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 농기원이 개발한 증식방법은 3년 이상된 천문동에서 씨앗을 채취, 그물망(網)에 담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수상태가 좋고 습기가 있는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묻어놓았던 씨앗을 파종 직전 캐내 성장촉진제에 하루 동안 담갔다 육묘상자에 파종하면 발아율이 89%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취한 씨앗을 땅속에 묻지 않고 직접 성장촉진제(200ppm)에 3일간 담가 두었다가 파종할 경우는 발아율이 60%선이었으며 묽은 황산용액(5%)에 40분간 담

근 뒤 파종했을 때는 30%대의 발아율을 보였다.

이는 땅속에서 육묘과정을 거쳤을 경우가 다른 방법보다 발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씨앗을 상온에 놓아 뒀다가 파종할 경우(발아율 10%)보다는 8-9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동은 씨앗 겹질이 매우 단단하고 3겹이나 돼 야생상태에서는 발아율이 매우 낮아 일부 농가에서 소량을 채취하고 있을 뿐 근래에는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렀다.

농기원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보관중인 씨앗을 활용해 종자 증식법을 찾아냈으며 내년에는 일반농가에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 규격출하 포장지원비 신청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허순범)은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비 보조사업 신청을 24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사업신청 기간은 2003년 사업은 2003년 1월10일까지, 2004년 사업은 2003년 1월20일까지다. ☎063-243-9514.

## 논산 '식물병원' 내년 문연다 농기센터 ... 작물병해충 진단

충남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이 의뢰하는 농작물과 과수, 일반인들이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난·관엽식물 등 모든 식물의 이상 증후와 병리현상을 정밀진단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부터 '식물병원'을 운영키

### '헛개나무' 다수확 5종 첫선 숙취해소·간경화방지 효능

숙취 해소, 간경화 방지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열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가 열렸다.

산림청은 지난 5년간 전국의 10개 자생지로부터 64개의 우량개체를 선발하여 접목 증식과정을 거쳐 일반 헛개나무보다 생장이 빠르고, 열매자루를 1.8~2.5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5개의 우량품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육성한 우량품종은 <강원 III-3> <강원 I-17> <강원 II-5> <전남 I-1> <전남 I-3> 등이다. 이들 품종은 나무 한그루당 열매 결실량이 11~16kg으로 일반 헛개나무의 6kg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헛개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발 50~800m에 자라는 토종 식물로, 약효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전국의 자생지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남벌돼 그 개체수가 멸종위기 수준으로까지 줄어든 상태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유전자원부 정현관 연구관은 "지속적인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수원과 충주에 유전자은행을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된 품종은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2008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31-290-1189.

## 한약재 '잔대' 인공재배 성공

영월농민 이기범씨, 5년째 생산

수입급증으로 국산한약재의 값 하락과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농업인이 잔대 인공재배에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업인 이기범씨(52·강원 영월군 남면 청원2리)는 자생 잔대를 이식, 씨를 받아 파종하는 방식으로 인공재배를 시도해 5년째 잔대를 생산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야생 잔대의 인공재배기술 개발에 나선 이씨는 5년 전인 1998년부터 재배에 성공을 거둬 인근 농가와 함께 비가림하우스에서 잔대를 기르고 있다. 현재 600평의 비가림하우스에서 잔대를 재배하고 있는 이씨는 해마다 3~4월에는 잎을 채취, 서울로 출하하고 3년마다 수확하는 뿌리를 한약재로 판매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년생 식물인 잔대는 뿌리와 잎을 식용하거나 한약재로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토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공재배할 경우 발아가 잘 안돼 그동안 주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해 왔으며, 최근에는 야생 잔대가 크게 줄어 중국산 말린 잔대가 수입돼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033-372-4206.

### 가시오갈피·삼지구엽초

### 강원농기원, 종묘 분양

최근 농가소득 작목으로 인기가 높은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 종묘가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석현용) 북부농업시험장은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 종묘 4만주를 올 5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북부농업시험장은 자체 개발한 가시오갈피 종자증식기술을 이용, 시험포장에서 생산한 가시오갈피 종묘 2만주를 보급키로 하고 올 2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삼지구엽초 종묘 2만주도 동시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 보급키로 했다. ☎033-458-4783.

### 문경농기센터

### 소득증대 '최우수'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실시한 유형별 최우수센터 심사에서 전국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농가 소득 증대 분야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1998년부터 실시해온 문경 농업 현대화사업을 통해 표고버섯 단지, 오미자 단지 등 21개 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지금까지 5년간 모두 257억원의 농가소득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이같은 공로로 지난 23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054-555-7328.

### 제주에 한약재 생산기지 조성 검토

### 우근민 지사 밝혀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를 살린 한약재 생산기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 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5년 후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지사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토대로 농가에 한약재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한약재 가공공장까지 만들어 농가재배 한약재를 전량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